

외국인 도우미 전단지 뿌리며 유흥업소 호객행위 난무

외국인 몰려든 수영대회 '낮 부끄러운 광주'

선수단 관계자 머무는 상무지구 단속해도 불법 영업 근절 안돼

"행님! 혹시 좋은데 안 찾으십니까? 러시아 아가씨도 있고, 필리핀 아가씨도 있어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5일째를 맞은 지난 16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뒤편 사거리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필리핀이라는 눈에 띄는 빨간글씨와 외국여성들의 사진 밑에 '다국적 톱클럽'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불법 호객행위를 수 시간째 멈추지 않았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분부호텔인 라마다 호텔은 세계 각국의 대회 임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한 시민은 "도심 한복판에서 유흥업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다"면서 "러시아나 필리핀 선수단 등이 자국 여성을 내세운 유흥업소 전단지를 보면 얼마나 불쾌하겠느냐"고 말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전 세계인의 이목이 광주로 집중되고 있지만, 일부 유흥업소의 불법호객 행위가 도를 넘어지면서 '인권 도시 광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단 숙박업소 밀집지역인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낮뜨거운 내용이 담긴 유흥업소 전단지까지 살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무분별한 호객행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와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 인근 도로에 뿌려진 유흥업소 전단지.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세계수

영선수권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 단속결과 12만 6144건을 적발해 2억 368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광주에는 631곳의 유흥주점(톱살롱·디스크클럽·노래클럽 등)과 469곳의 단란주점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무지구 일대 단란주점에만 159곳의 유흥주점과 22곳의 단란주점이 몰려있다. 상무지구 내 유흥업소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지속적인 단속에도 호객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단속중이지만, 완전히 근절되기 위해선 업소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만이라도 불법 호객행위나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근무중 딸 태우고 관용차 사적 사용 광주 남구 부구청장 일탈행위 '물의를'

운전담당 직원 버젓이 동원
교통사고로 뒤늦게 밝혀져

광주시 남구 황인숙(여·59) 부구청장이 근무시간 중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관용차는 구청 소속 운전담당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황 부구청장의 K5 관용차량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차량에는 황 부구청장, 운전기사 A씨, 황 부구청장의 대학생 딸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관용차량은 폐차를 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으며 황 부구청장은 팔다리, 운전기사 A씨는 허리, 딸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황 부구청장은 남구청을 출발해 업무차 시청으로 가던 도중 서구 운전기사 수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딸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남구청 안팎에선 황 부구청장이 근무시간에 딸을 귀가시키기 위해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 부구청장 자택은 광주시청에서 멀지 않은 계수초등학교 인근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A씨는 "(황 부구청장이) 운전기사 수지 쪽에 딸이 있으니 태우고 가자고 해 태웠다"면서 "무슨 이유로 딸을 태웠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부구청장은 "남구 서동의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가 시청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듣고,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등을 만나 해당 부지에 남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시청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딸이 운전기사 수지 인근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차에서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 태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연히 방향이 맞아 딸을 태웠을 뿐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지인 감금·폭행 도주 20대 남녀
순창서 차량 현금 털다 검거

동갑내기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공범 4명 중 달아난 서모(20)씨와 박모(여·20)씨 등 2명이 전북 순창에서 차털이를 한 전력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도주중이던 서씨 일당이 지난 8일 새벽 3시께 전북 순창군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70만원을 훔쳐 절도 혐의로 순창경찰서 형사들에게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3일 새벽 2시 35분까지 동갑내기 친구인 A(20)씨를 약 17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게 감금·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광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동네 물총축제 신나요 17일 광주시 서구 화정1동 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우리동네 물총축제 '다 잇수' 행사에서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물총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국 돌며 화물차 턴 5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17일 공사장 주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박모(55)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5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다. 전과 9범으로 뚜렷한 거주지와 직업이 없는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3회에 걸쳐 총 195만원 가량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천 떼죽음 비둘기 사체서 살충제 검출

동구, 경찰에 수사 의뢰

광주 도심에서 떼죽음 당한 비둘기의 사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구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일 동구 남광주 고가도로 인근 광주천변에서 무

더기로 죽은 채 발견된 비둘기 62마리 사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보퓨란(carbofuran)이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비둘기 소화기관에 남아있던 음식물에서 치사량 수준의 카보퓨란이 공통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보퓨란은 살충제나 농약 등에 쓰이는 독성 물질로 체중 1kg당 5~14mg를 섭취하면 사망할 수 있다.

동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해칠 목적으로 먹이에 살충제를 섞어 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먹이를 준 사람을 추적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현장접수 불편 광주 우산수영장 시스템 개선키로

광주 우산수영장 등 광주지역 공공수영장들이 낙후된 운영 방식을 고수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9년 7월17일자 7면)과 관련해 광주시 북구가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북구는 "현장접수만 받고 있는

우산수영장의 접수 시스템을 오는 8월 중 개선해 '겨울방학 특강'부터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또 수영장 직원들이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래 불법 포획 무더기 검거

서해상에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은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1)씨 등 어선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B(59)씨 등 선원 1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체포과정에서 달아난 선원 2명은 인적사항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항소심 "우발적 범행...해임 부당"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당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17일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했다는 것. ○...A씨는 2017년 9월 9일 자정께 택시를 타던 중 60대 여성기사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4point

J2 5point

J3 6point

J5 8point

J6 10point

J7 12point

1 6 5 2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6 9 1 7 4 9 8 0 2

8 7 8 1 4 9 8 0 2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